



즉시 배포용: 2023년 10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개인을 보호소에서 벗어나 독립 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주 차원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에게 **1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뉴욕주 노동부, 약 400명의 고용주와 협력하여 취업 허가를 받은 망명 신청자 및 이민자를 위한 기회 모색*

*주지사, 고용주가 뉴욕주 전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를 찾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 시작 - [여기](#)에서 디지털 전단지 확인 가능*

*뉴욕주의 이민자 위기 해결을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취득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기꺼이 고용하려는 약 400명의 고용주와 함께 주정부가 18,000개 이상의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Hochul 주지사가 뉴욕주 노동부에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취득한 이민자 및 망명 신청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연결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주지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개인에게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하여 이들이 보호소를 떠나 자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에 성공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의 법적 근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이 일하러 이곳에 왔으므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민자 위기와 노동력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 자격을 갖춘 개인들을 뉴욕의 일자리와 기회와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8월 24일,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노동부(NYSDOL)에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어떤 일자리를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로 채울 수 있는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379개 기업에서 18,000개 이상의 민간 부문 채용

공고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기업들은 합법적인 업무 지위를 가진 개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에는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의료 및 사회 지원, 제조 및 행정 지원 분야의 채용 공고가 포함됩니다.

산업	비즈니스	%
숙박/음식 서비스	90	24%
의료/사회 지원	79	21%
제조	38	10%
행정 지원	29	8%
기타	27	7%
건설	20	5%
소매 무역	19	5%
전문, 과학 및 비즈니스 서비스	15	4%
예술/엔터테인먼트/레크리에이션	12	3%
교육	12	3%
도매 무역	12	3%
운송/창고	7	2%
폐기물 관리	7	2%
부동산 임대 및 임대	6	2%
금융	3	1%
농업	1	<1%
컴퓨터 및 정보 관리	1	<1%
공공 행정	1	<1%

지역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작업 수
수도권 지역 일자리	523
센트럴 지역 일자리	673
핑거 레이크스 일자리	205
허드슨 밸리 일자리	2,896
롱아일랜드 일자리	1,294
모호크 밸리 일자리	120
노스 컨트리 일자리	208
서던 티어 일자리	98
서부 지역 채용	1,521
뉴욕시 일자리	9,801
기타	1,084

고용주는 [포털](#)을 통해 식별되었으며 고용주는 이 포털에서 새로 승인된 개인을 고용자로 맞이하겠다고 주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망명 신청자와 취업 허가를 받은 이민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와 16개 주 기관을 대표하는 70명의 주 직원으로 구성된 팀은 이후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의 기술 및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강력한 홍보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더 많은 고용주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고 취업 허가를 받은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YSDOL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고용주에게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고용주를 교육부의 접수 양식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전단지 배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뉴욕의 이민자 위기에 대한 대응

Hochul 주지사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이 납세자가 지원하는 보호소를 떠나 수 세대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취업 허가를 이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Hochul 주지사와 정치, 시민, 비즈니스 리더들의 광범위한 연합이 수개월에 걸친 지지 끝에 백악관은 2023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에 도착하는 개인에게 임시 보호 신분을 부여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뉴욕시는 이를 통해 15,0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개인이 30일 이내에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가 법적 근로 지위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에 인력과 자원을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2,100명 이상의 주 방위군 인력 배치의 일환으로 상근 사례 관리 서비스에 배치된 250명의 주 방위군 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를 지원하는 지역 비영리 단체에 2,000만 달러, NYC Health + Hospitals를 통해 [케이스가 급증](#)하는 뉴욕시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 이민자 [법률 서비스](#)에 1,000만 달러를 할당하는 등 사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번 위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주정부는 쉼터, 교통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17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주정부는 최근 이러한 목적으로 뉴욕시에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맨해튼의 구 링컨 교도소와 JFK 공항의 빌딩 197 등 여러 개의 국유 부지를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크리드머어 정신과 시설(Creedmoor Psychiatric Facility)과 랜달스 아일랜드에 있는 여러 인도주의 긴급 대응 및 구호 센터(Humanitarian Emergency Response and Relief Center, HERRC)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